

2-2. 미분의 기초

미분 이해를 위한 예제

강남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72.56km 거리를 가는데
자동차로 1시간반 걸렸다.

이때 자동차의 평균 속도를 구하자.

$$\text{평균속도 } v = \frac{72.56\text{km}}{1.5\text{h}} = 48.37\text{km/h.}$$

→ 항상 이 속도는 아니고, 신호 대기 중일 수도,
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일 수도 있음.

시간을 조금씩만 10분 동안, 1분 동안, 1초 동안 몇 km를 달았는지 알아내면
자동차의 속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음.

→ 순간속도

자동차의 이동거리를 x , 이동시간을 t , 시간이 t 일때 자동차의 위치를 $x(t)$

라고 가정할 때, 순간속도 v 는 아래 수식으로 구함

$$v = \lim_{\Delta t \rightarrow 0} \frac{\Delta x}{\Delta t} = \lim_{\Delta t \rightarrow 0} \frac{x(t+\Delta t) - x(t)}{\Delta t} \quad \rightarrow \text{미분}$$

$\lim_{\Delta t \rightarrow 0} \Delta x \rightarrow$ 이동 거리의 변화량

$\lim_{\Delta t \rightarrow 0} \Delta t \rightarrow$ 이동 시간의 변화량

⇒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

시간의 변화량 Δt 를 최대한 0에 가깝게

만들 때 순간속도가 얼마인지 알아내기 위한 식

$$\lim_{\Delta t \rightarrow 0} \frac{x(t+\Delta t) - x(t)}{\Delta t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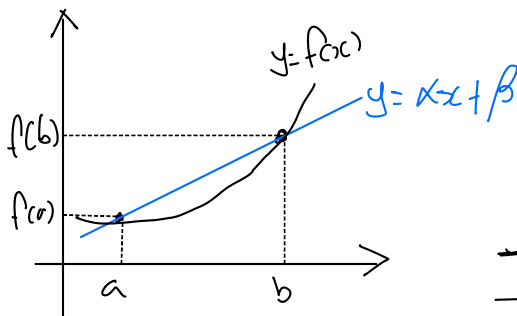
$x(t+\Delta t)$ 는 시간이 $t+\Delta t$ 일때 자동차의 위치

Δt 를 0에 가깝게 극한으로 만들 때의 Δx 가 미분.

변위(거리) 크기로 작을수록 Δx 대신 dx 사용하며 dt & dx 로 표기.
 마찬가지로 시간 미분도 $\frac{dx(t)}{dt}$ 로 표기.

$$\text{속도로 } v = \frac{dx(t)}{dt} = \lim_{\Delta t \rightarrow 0} \frac{\Delta x}{\Delta t} = \lim_{\Delta t \rightarrow 0} \frac{x(t+\Delta t) - x(t)}{\Delta t}$$

일단 주어진 함수에 작용했을 때, 두 점 $(a, f(a))$ 및 $(b, f(b))$ 가 있다면 가정



$$\begin{aligned} f(b) &= kb + \beta \\ - f(a) &= ka + \beta \\ \hline f(b) - f(a) &= kb - ka \\ k &= \frac{f(b) - f(a)}{b - a} \\ \beta &= f(a) - ka \end{aligned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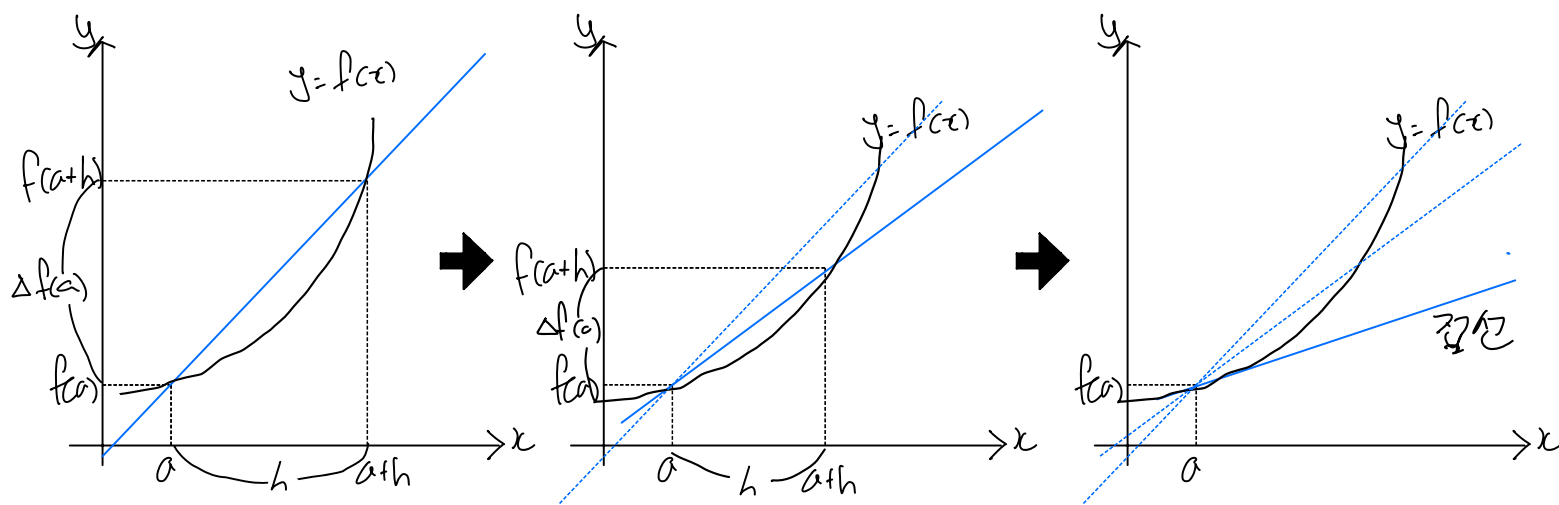
$$\beta = f(a) - ka = f(a) - \frac{f(b) - f(a)}{b - a}a$$

기울기 k = 두 점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변화한 정도

$$\text{기울기 } k = \frac{df(x)}{dx} \quad \text{즉 구간 전체 극한을 사용한다}$$

이전 함수의 극한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것 \Rightarrow 미분한다.

두 점의 간격을 좁게 만들 때의 극한과 접선



수식

$$\begin{aligned} \frac{df(a)}{dx} &= \lim_{\Delta x \rightarrow 0} \frac{\Delta f(a)}{\Delta x} = \lim_{h \rightarrow 0} \frac{f(a+h) - f(a)}{(a+h) - a} \\ &= \lim_{h \rightarrow 0} \frac{f(a+h) - f(a)}{h} \end{aligned}$$

$\lim_{h \rightarrow 0} (a, f(a))$ 에서 $y=f(x)$ 의 접하는 직선 $y=\alpha x + \beta$ 를 접선이라고 함

tangent, tangent line

이 공간 변화율의 극한값인 α 는 $x=a$ 일때 미분계수라고 함

$$y = \frac{df(a)}{dx} x + \left(f(a) - \frac{df(a)}{dx} a \right) = \frac{df(a)}{dx} (x - a) + f(a)$$

위 수식에 a 는 변하지 않는 수라는 점을 명심.

이때 a 에 대한 x 를 대입해서 $\frac{df(a)}{dx}$ 의 값은 고정되어

$\frac{df(a)}{dx}$ 는 x 에 대한 일종의 상수

$\frac{df(a)}{dx}$ 도함수

공식

$$\frac{df(x)}{dx} = \lim_{\Delta x \rightarrow 0} \frac{\Delta f(x)}{\Delta x} = \lim_{h \rightarrow 0} \frac{f(x+h) - f(x)}{h}$$

$$\frac{df(x)}{dx} = f'(x)$$

하지만 x 가 dx 만큼 아주 조금 변화할 때

함수 $f(x)$ 가 얼마나 변화 ($df(x)$) 하든지

아주 짧은 선분의 변화율로 표현함.

미분 한 번 한 것을 **1계 미분**

미분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미분한, 총 두 번 미분한 것을 **2계 미분**이라고 함

$$2\text{계 미분} = \frac{d^2 f(x)}{dx^2} = f''(x)$$

인공지능에?

함수의 값이 어느 지점에서 최소로 되는 지를 알아내는데 중요함

예시) 손실함수 (loss function)는 정답과 예측값 (즉정값) 사이의 오차를 표현하는 함수.

이 함수의 값을 최소화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.

손실함수를 미분하면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이 함수의 기울기가

나오는지 알 수 있음.

이 기울기의 절댓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 지점을 옮기다 보면

손실함수의 최솟값을 찾을 수 있음

⇒ **경사하강법**